



## EC 위원회, 美日企業에 對應하여 新研究開發 5個年 計劃

유럽공동체( EC )위원회는 27일, 1992년의 시장통합을 향해 '90년부터 5년간의 연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통신 등 6개의 선진기술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며, 연구개발비의 총액은 77억 ECU (유럽통화단위)를 예상하고 있다. 시장통합을 앞두고 유럽기업은 미일의 대기업과의 격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어, EC 규모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여 유럽기업의 선진기술개발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획에는 공통기반기술로서 정보·통신에 3,000억 ECU, 산업기술·소재에 12억 ECU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외에, 자연자원의 관리를 목표로 환경에 7억 ECU, 생명과학에 10억 ECU, 에너지에 11억 ECU를 각각 투입한다. 또, EC 역내의 과학자의 상호교류등 지적자원의 양성에 7억 ECU를 사용한다.

EC는 현재, 87-91년의 기간에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기술개발의 속도가 예상이상으로 빠른데다가, 정보·통신분야등에서 유럽기업은 미일기업과 심한 기술경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여러가지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에서 중점분야로의 집중적인 투자로 변경시킴과 아울러 '92년의 시장통합을 명확히 계획에 포함한 新5개년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과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결합하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개발력강화를 중시, 전체연구개발비의 4할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유레카(유럽선진기술개발계획)의 사업과 협력하여 64 Mbit 등 고집적인 반도체 메모리개발에 참가할 방침을 결정한 외에, 이동체통신이나 HDTV의 개발·상업화도 조성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대책이나 각종의 신제품개발의 공동연구등도 중시한다. 이번 연구개발계획의 실시는 관계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사회도 기본적으로는 신계획으로의 이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의 총액이 현행보다 4할이상이나 늘고 있으므로, 영국등이 계획의 일부검토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英國 C&W, BT의 아성에 挑戰

영국정부는 일찌기 BT와 C&W의 경쟁을 자극하여 국제경쟁력을 높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